

# 체육과목 실기 시험 종목 공개 추첨

### 전북자치도교육청, 24일 오전 10시... 투명성 확보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 임용 제2차 시험 체육과목 실기평가 구기종목을 공개 추첨하기로 했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체육과목 실기평가는 총 5개 종목을 실시하는데 육상(60M허들)·수영·체조(마루운

동) 3개 종목은 필수 종목이고, 2개 종목은 구기종목으로 축구·농구·배구 중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공개 추첨은 오는 24일 창조나래(별관) 2층 1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20분 전까지 입실하면 된다.

추첨 방식은 방청객 중 추첨자(1순위: 응시자, 2순위: 일반인) 2명을 선정해 무작위로 결정한다.

구기 종목 후보군인 축구, 농구, 배구가 적인 용지를 각각 불투명 플라스틱 캡슐에 봉인해 추첨 상자에 넣은 후, 추첨자 2명이 무작위로 각각 1개의 캡슐을 뽑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추첨 결과는 25일 이후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e.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구직-중등임용시험)에 공지된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공개 추첨이 모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실기평가 시험 종목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는 '사자성어' (사랑 실은 자전거 타고 성품채플 어디든 간다) 시즌4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 전북대-베트남 퀴논시, 유학생 유치 노력 '한 뜻' | 퀴논 대표단, 양오봉 총장과 접견

베트남 빈딘성 퀴논시 대표단이 전북대학교를 찾아 유학생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퀴논시 의회 의장인 당 만 끄엥과 시장 응오 황 남을 포함한 총 1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최근 전북대를 찾아 양오봉 총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와 퀴논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퀴논시 우수 학생들이 전북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당 만 끄엥 시장은 전북대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전북대와 퀴논시 간 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최근 베트남 퀴논시 의회의장인 당 만 끄엥과 시장 응오 황 남을 포함한 총 1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최근 전북대를 찾아 양오봉 총장을 접견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이후 대표단은 전북대가 마련한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북대 인터내셔널센터와 인문사회관, 전북지역연락처, 응급의료센터, 중앙도서관 및 건지광장 등을 둘러봤다. 대표단 중 전 키 하우 퀴논시립병원장은 전북대 병원의 구성과 시설 등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형성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에게 글로벌대학 전북대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학생들을 우리대학에 많이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자치도교육청, 중대재해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3층 종합상황실에서 중대산업재해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 및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리종사원 중대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산업재해예방담당, 급식담당, 모의훈련 지정학교인 전주양현중학교가 참여해 초기 대응부터 신속한 보고 체계, 개인별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학교 현장의 비상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해 전주양현중에서 실시한 비상조치 자체 훈련도 참관했다.

/장은성 기자

## 도내 대학 학생들 위한 학습·소통공간 조성

### JST 오픈캠퍼스 북카페 전북대 중앙도서관서 개소

전북지역혁신플랫폼 RIS대학교육혁신본부(본부장 이교우)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 JST공유대학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소통할 수 있는 'JST오픈캠퍼스 북카페'를 조성, 개소식을 가졌다.

21일 RIS대학교육혁신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이교우 본부장을 비롯해 참여대학 및 지자체 관계자, 학생, 지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된 'JST오픈캠퍼스 북카페'를 함께 둘러봤다.

'JST오픈캠퍼스 북카페'는 JST 공유대학 학생 및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내 최대의 풍부한 자료가 비치돼 있다. JST 공유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등도 함께 구성돼 있어 학생들의 활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 조성된 'JST오픈캠퍼스 북카페' 내부.

이교우 본부장은 "JST공유대학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RIS대학교육혁신본부는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산업, 농생명·바이오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정주형 혁신기업 양성을 위한 JST공유대학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로컬벤처학부 소프트웨어 관련 기관과 협약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학부장 김시열)는 지난 18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및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회장 신동명)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협약기관은 △상호 전문적 경험과 자원을 활용한 지식재산 공동 교육 추진,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위한 협력, △인력 및 지식정보의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후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유동·관리 체계 구축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발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가치평가 및 자산관리 체계 모델(이상미 선임연구원, 협회), 블록체인의 기반 SW저작권 추적관리 시스템(김순중 이사장, 한국SI거래소), 블록체인 기술 기반 SW저작권 토큰화 모델(이지현 이사, 필터필), DNA 특징점 기반 SW저작권 DB 자동화 분석 시스템(서민승 대표, 유니온 콘텐츠) 순으로 이뤄졌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GTEP사업단, 한인비즈 참가 국내 기업 수출길 마련 큰 역할 나선다

### 사업단 학생들, 기업전시관 안내·비즈니스 미팅 참여... 해외 바이어 상담 경험 발휘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창업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학생들이 22~24일 전북대 일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자원 봉사자로 참여해 국내 기업의 수출길 마련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GTEP사업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김해미, 김수진, 김나영, 박준모, 이지수, 장재석(무역학과), 박민지(스페인중남미학과), 윤주(생명자원소재공학), 하윤경(프랑스아프리카학과) 요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이들은 국내의 재외동포 기업인 등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기업전시관 안내'를

통해 바이어들에게 부스위치 안내 및 인력 요청 시 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 연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바이어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내 수출길 개척, 한인 경제인간의 교류, 글로벌 수출 네트워크 형성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강주연, 김태형, 이우현, 장운서, 최수현, 최서정(무역학과), 김정민(일본학과) 학생도 '1:1 비즈니스 미팅' 업무를 수행하며 세계 경제인과의 상담을 통해 국내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GTEP사업단은 하계방학 중 '동남아비즈니스에이جت', '동남아

시아 시장의 이해 및 마케팅 전략'의 특강 등의 절차를 이수했다.

또한 일본과 대만, 베트남, 미국, 홍콩,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참여해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 수출 상담을 통해 이번 한인비즈니스대회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갖췄다.

김민호 단장(무역학과)은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기간 각별한 지원봉사로 역동적인 대학의 모습을 세계에 적극 알리겠다"며 "특히 세계적인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수출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내년 5급 승진대상자 발표

### 인사위원회 의결 거쳐 총 24명... 내년 1월 이후 임용 발령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년 5급 승진대상자 24명을 발표했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엔 선발된 5급 승진대상자 24명은 역량평가 등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별됐다.

특히 9월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15~20일 보고서 평가, 업무실적 및 면접평가, 업무능력 우수자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엔 선정된 5급 승진대상자는 오는 11월 4일부터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4주간의 기본교육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5급 승진대상자 선정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5급 승진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교육행정직 권미라(대변인), 권승호(남원여자고등학교), 김경근(전북유니테크고등학교), 김영길(마령고등학교), 김유진(익산교육지원청), 나은연(이리공업고등학교), 박진수(원주교육지원청), 안미경(정읍여자고등학교), 오용식(임실고등학교), 이미재(함흥중학교), 이수진(전주유화학교), 임대선(행정고), 장성순(동신초등학교), 전은정(군산여자고등학교), 정상현(총무과), 정은숙(순창교육지원청), 진미진(전주여자고등학교), 최은영(해리고등학교), 한준규(산서고등학교)
- ▲시설직 노학남(원주교육지원청)
- ▲공직직 정영모(고창교육지원청)
- ▲전산직 김성록(과학교육원), 조준연(미래교육과)

/장은성 기자

##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학습 돕는다

### 전북교육청, 양천모 원광대 정신의학과 교수 초청 특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2층 강당에서 양천모 정신의학과 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전북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과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0월은 교육부,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와 공동 주관한다.

특강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https://naver.me/FRLXP4rf>) 및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양천모 교수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내 정신의학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폭넓은 연구를 통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정신 건강, 스트레스 관리, 마음챙김 치료법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마음건강증진센터와 병인형 위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정신 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강연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마음챙김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라며 "학부모들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